

이천시의회 의정소식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이천시의회 공식채널

이천시의회는 유튜브 및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다채로운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



C O N T E N T S

발간사 4

의원 인사 6

2026년도 의정활동 8

● 주요 안건 처리 현황

- 제259회 임시회
- 제260회 임시회
- 제261회 임시회

● 의정 뉴스

제8대 이천시의회 주요성과 26

- 일반현황
- 회기 운영
- 의안 처리
-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 5분 자유발언
- 예산현황
- 정책 연구

의원별 의정성과 39

- 박명서 의원
- 김재현 의원
- 김재국 의원
- 임진모 의원
- 서학원 의원
- 박노희 의원
- 김하식 의원
- 박준하 의원
- 송옥란 의원

제8대 이천시의회 10대 의정 이슈 .. 58

의회 참여 안내 63



제2026-1호

- 발행일 : 2026년 6월 4일
- 발행인 : 이천시의회 의장
- 제작기간 : 2026. 1. 1. ~ 5. 31.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의회)

- 전화 : 031)644-2532
- 이메일 : council.icheon@gmail.com
- 홈페이지 : https://council.icheon.go.kr





설봉공원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이천시의회 의 공식 회기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이천시의회 의 공식 회기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끝까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7월,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으려 했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이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이 판단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뜻을 충실히 살피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며 지역의 현안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의회의 본질이라 믿었습니다.

그동안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라는 목표 아래 943여 건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과 지역의 요구를 확인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언제나 충분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정의 방향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결국 의정의 출발점도, 판단의 기준도 시민이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치는 거창한 말보다 믿을 수 있는 태도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잘 보이기 위한 말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갈등을 키우는 주장보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판단**, 그리고 **시민 목소리를 제도와 변화로 연결하는 성실함**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의 삶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 결과로
☀️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변화는 거창한 말보다 성실한 실천에서 시작
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필요한 변화를 꾸준히 만
들어갈 때 비로소 시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충실한 심사, 하나의 성실한 실천,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꾸준한 노력이 쌓여 지역의 방
향을 만들고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이천시의회는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삶으로 증명하
는 의정활동, 결과로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끝까지 성실히 답함으로써 제8대 이천시의회에 마
지막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이천시의회 의장 **박명서**



제8대 이천시의회를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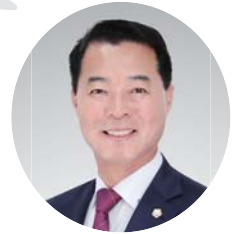
김재현 의원

저는 제8대 의회에서 전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소통과 조정을 바탕으로 의원 간 화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불편한 곳은 직접 살피고, 필요한 곳에는 먼저 손을 내밀며,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 이천의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과제를 잘 정리해, 이천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잃지 않고 시민 곁에서 맡은 바를 성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실천하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재국 의원



임진모 의원

저는 제8대 이천시의회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행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성장하는 이천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늘 고민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천의 미래를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8대 이천시의회에서 현장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직접 듣고, 그것을 조례와 정책으로 풀어내는 데 힘써 왔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믿음이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박노희 의원

저는 제8대 의회에서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교통, 주거, 복지, 생활환경처럼 당장 불편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의정활동은 결국 시민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를 이끌며 저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신뢰, 그리고 의회의 책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함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는 결국 의회가 얼마나 진심으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천의 미래를 위한 길에 늘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하식 의원



박준하 의원

제8대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목소리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더 나은 이천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청년과 가족, 소외된 이웃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8대 의회에서 농업, 환경,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분야에 폭넓게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과 취약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작은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말보다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천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송옥란 의원



2026년도 의정활동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259회 임시회 · 제260회 임시회 ·
예산현황 · 제261회 임시회 · 5분 자유발언

의정 뉴스

제259회 임시회

시민 중심 의정활동으로 2026년 첫 회기 마무리

2026. 2. 12.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2월 12일(목)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 진행된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의원들은 ‘2026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하식 의원이 ‘고교학점제와 이천시의 역할’을, 서학원 의원이 ‘이천, 규제의 도시에서 국가 전략 거점도시로’를, 마지막으로 송옥란 의원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희망 이음길 고가 보행로’를 주제로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가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위탁운영 및 감면 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보완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박명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은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이천과학고 설립 지원 및 교육 협력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이천과학고 설립이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 및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5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

농업용 저온저장고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농업 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

-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

송옥란 의원

도서관 폐기 도서를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활용 기준과 관리대장, 계획 수립 및 공개 체계를 규정하고, 기부행위 제한 문제를 해소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촉진하며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

-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하식 의원

달집태우기 전통축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 예산지원, 관람객 편의 제공, 평가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보조금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김재현 의원

위기 임신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의료, 보호출산 및 사후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생명 보호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

이천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서학원 의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보조금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

-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0회 임시회

민생안정 위한 예산·정책 의결

2026. 4. 2.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심 없이 달려온 제8대 이천시
의회(의장 박명서)가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약 1조 7,066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임진모 의원의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 개선 방안', 송옥란 의원의 '폐유 재활용으로 지키는 이천 농업의 미래', 박노희 의원의 '지
난 4년의 책임, 앞으로의 약속', 서학원 의원의 'AI 실증 중심 도시, 이천을 향한 제안'을 주제로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천시의회 공무
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천시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건별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에 대해 보완 의견을 반영해 수정 의결
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엄격
히 심사했다. 최종 확정된 이천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066억 9,813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37%인 3,560
억 8,926만 5,000원이 증액됐다.

김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확정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고통받는 민
생 현장에 실질적인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명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의 삶에 필요한 해법
을 찾기 위해 심 없이 고민해 왔다"며 "마지막까지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시민의 기대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로 책임
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26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 재 국 의원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출장계획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심사 및 사후보고 절차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장의 타당성과 결과 활용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부개정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 학 원 의원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복무 기준을 정비하고 휴가·근무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

-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 옥 란 의원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권리구제 기능을 확대하려는 전부개정안

-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하 식 의원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준과 지원 방안을 정비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김 재 현 의원

고령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규정.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 진 모 의원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또한 주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노 희 의원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 및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제261회 임시회

고유가 부담 완화 총력… 긴급 임시회로 추경 심의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의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5월 7일 하루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곧바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 4시 본회의를 속개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7,326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52% 증액 편성됐으며, 이중 약 156억 9천만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고유가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라며 “임시회를 통해 관련 예산안을 신속히 심의·처리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1조 3,506억 887만 1천원에서 1조 7,066억 9,813만 6천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560억 8,926만 5천원이 증액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교통·물류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위원회는 효율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포함)	2026년 본예산	증감(%)
합계	1,706,698,136	1,350,608,871	356,089,265(26.37%)
일반회계	1,496,331,748	1,203,664,051	292,667,697(24.31%)
공기업특별회계	130,027,648	102,789,978	27,237,670(26.50%)
기타 특별회계	80,338,740	44,154,842	36,183,898(81.95%)



5분 자유발언

임진모 의원

체험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미래 인재가 달라집니다.



제259회 제1차 본회의

2026. 2. 2.

청소년 교육이 입시와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건설과 같은 필수 산업은 경험조차 없이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은 사회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현장에서는 젊은 인력 감소와 외국인 노동 의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관련 경험이 부족했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일부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을 돕고 있으며, 이는 교육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 차원에서 체험 중심 건설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건설 학교’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 직업 체험이 아닌 설계 · 협업 · 문제 해결을 배우는 교육으로, 건설을 전문 산업이자 진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 구조와 산업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260회 제1차 본회의

2026. 3. 20.

2027 세계청년대회는 이천을 세계에 알릴 도시 경쟁력의 결정적 기회입니다.

이천시 모가면 어농성지는 천주교 수원교구 성지로 국내외 순례객이 찾는 문화 · 종교 관광지이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약 6만~9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됩니다. 이는 이천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입니다. 방문객의 첫인상은 곧 도시 이미지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어농성지 진입로 정비, 안내 표지판 보완, 주변 경관 개선 등 기반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결한 도로 환경과 정돈된 가로경관,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등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도로·도시 정비 등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특정 종교 지원이 아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로, 이천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260회 제2차 본회의

2026. 4. 2.

행정의 연속성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와 기록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인사이동 시 반복되는 업무공백과 민원처리 단절 문제는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동일한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특히 장기 민원과 복합 인허가 업무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현재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이 있으나 실무 담당자까지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인수인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원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표준 인수인계서 도입, 담당자 변경에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민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수인계서 작성과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이 아닌 제도와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김 하 식 의원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2.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성적 중심에서 선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이해 부족, 입시 연계 불안, 교사의 업무 부담, 과목 개설 한계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와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택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천시는 체육·문화시설 활용, 지역 기관 연계 교육과정, 이동수업 지원, 학습지원 체계 구축 등에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확대나 철회가 아닌 지역 맞춤형 보완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천형 공동교육과정'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개선은
시설 문제가 아닌
이천 농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입니다.



제259회 제1차 본회의

2026. 2. 2.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 기술지도, 병해충 대응 등 농업의 핵심 컨트롤타워임에도 1990년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 문제와 함께 민원 응대, 교육환경, 업무 효율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스마트농업, 청년농 지원 등 확대된 기능을 감당하기에도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단순 보수를 넘어 리모델링, 현 위치 신축, 이전 신축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하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능 재설계를 통해 상담·교육 중심 허브와 실습·연구 기능을 분리하는 등 미래 농업 수요에 맞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260회 제1차 본회의

2026. 3. 20.

둘레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천시 둘레길은 이용 시민이 꾸준히 증가하며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에도 화장실, 쉼터, 음수대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보행환경의 문제입니다. 서울, 성남, 원주, 제주 등 타 지자체는 거점 중심 화장실 설치, 이동식 시설, 개방형 화장실 제도 등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와 구간별 설치 기준 마련, 이동식 화장실 도입, 민관 협력 개방형 화장실 확대, 고령친화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둘레길의 양적 확대를 넘어 이용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이천의 미래는
규제 대응이 아니라
국가 전략 편입에
달려 있습니다.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2.

이천은 수도권 규제와 환경보전 정책 속에서 40년간 주거 · 교통 · 산업 발전이 제한되어 왔으며, 노후 주택과 도로 문제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특수전 인프라를 활용한 방산 ·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 시 예산 중심에서 국가 예산 중심 전략 전환, 방산 · AI · 물류 · 교육을 묶은 국가전략 패키지 추진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등 특례를 활용해 규제를 극복하고, 항공 · 물류 기반 국가 인프라 구축으로 중부권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제 이천은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계획에 편입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260회 제2차 본회의

2026. 4. 2.

이천은 AI를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증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AI는 이미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현실이며, 이제는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와 HBM 생산 기반을 갖춘 준비된 도시로, AI가 실제로 구동되고 검증되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를 산업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물류 · 교통 · 산업 기반이 결합된 구조는 실증에 강점을 지닙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제조혁신 분야에서 AI 실증을 통해 산업 전환과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AI 실증단지과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 연구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따르는 도시가 아닌 실증으로 기준을 만드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시는 연결될 때 성장하고,
사람의 걸음이 그 연결을
완성합니다.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2.

중리 택지지구 입주로 이천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연결 여부가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연결이 부족하면 생활권이 분리되고 구도심 쇠퇴와 교통 혼잡 등 문제가 발생해 도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서울로7017과 세종 이음다리 사례처럼 보행 중심 연결은 단절을 해소하고 도시를 하나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차량 중심이 아닌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연결, 특히 고가 보행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길이 아닌 생활권을 잇는 도시 전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연결과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단절을 연결로 바꾸는 골든타임이며, 이천형 고가 보행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260회 제2차 본회의 2026. 4. 2.

농기계 폐유 문제 해결은
환경 보호와 농업 경쟁력을 지키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천시는 농업 중심 도시로 농기계 사용이 많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유 처리 문제가 현장에서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처리 방법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폐유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농산물 안전과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처리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폐유 수거함을 설치해 무료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및 마을 단위 공동수거통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한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부서 협업으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농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는 필수 과제입니다.



 박노희 의원



행정의 모든 기준은
오직 시민이어야 합니다

제260회 제2차 본회의

2026. 4. 2.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시민이 떠나지 않는 도시는 행정이 삶을 끝까지 책임질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교통, 보육, 일자리, 돌봄, 골목상권 등 민생 문제 해결이 곧 도시 경쟁력이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또한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 점검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이천은 특정 기업 세입 의존 구조와 경기 불안 속에서 산업 다변화가 시급하며,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유지비 부담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재정 지속성을 고려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행정의 기준은 오직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시,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이천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행복한 이천



제137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이천시 의회에서 개최



2026. 1. 29.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지역 현안을 함께 모색하는 ‘제137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29일 이천시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협의회장(남양주시의 회 의장),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경희 이천시장도 참석해 뜻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를 비롯해 차기 제138차 정례회의 개최 결정의 건이 논의됐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회가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의정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기 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의를 주관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소통해 나간다면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더욱 성숙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2026. 2. 11.

설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단순히 위문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 이용자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생활 속 불편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위문품으로 지역 특산품인 임금님표 이천쌀(10kg, 72포)을 준비해, 나눔의 의미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더했다.

박명서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어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숨쉬며, 나눔과 배려가 살아있는 따뜻한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소외없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NEWS



설맞이 배식 봉사

3



2026. 2. 12.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설을 앞둔 12일,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시설 이용자들에게 배식 봉사로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의원들은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따뜻한 덕담을 건네고, 정성껏 식사를 전달하며 명절을 앞둔 복지관에 온기를 더했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이용자들의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함과 건의 사항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더 나은 복지환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명서 의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와 나눔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NEWS



의정 모니터단과 함께 시민 참여형 의정 실현



2026. 3. 17.

NEWS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올해 첫 의정모니터단(단장 김민경)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3월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에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등이 참석해, 작년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의정활동 개선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수거함에 스크린형 뚜껑 설치를 통한 홍보 활용 방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료 후 바우처 지급 방안,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돌봄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의 필요성, 고등학교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의원들과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흥동 상업지역 내 신호체계 정비 문제 개선을 예로 들며 단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의정모니터단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공감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며, “단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건의가 이천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 실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단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초청 교육과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 시민 중심의 의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2026. 4. 6.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6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5명의 결산 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 검사 위원은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이천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재정 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 검사는 한 해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께서 책임감 있는 검사를 통해 이천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 감시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결산 검사 결과는 향후 결산 승인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6 “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자치 훼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반대 성명서 발표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 의원 일동은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이천시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이천시 의원 정수를 기존보다 1명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의원 정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읍·면 지역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생활권이 넓고, 지역별 행정수요 또한 뚜렷하게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상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축 대상인 다선거구에 포함된 부발읍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 교통, 주거,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의정 역량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기초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천시의회회의 판단이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의원 정수 감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현행 9명 유지 및 선거구 대표성 보장, 정부와 국회에는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면적, 재정규모, 수도권 규제 지역 특수성, 산업 구조,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
이천시의회 의원정수 감축 반대 성명서



제8대 이천시의회 주요성과

일반현황 | 회기운영 | 의안 처리 |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 5분 자유발언 | 예산현황 | 정책 연구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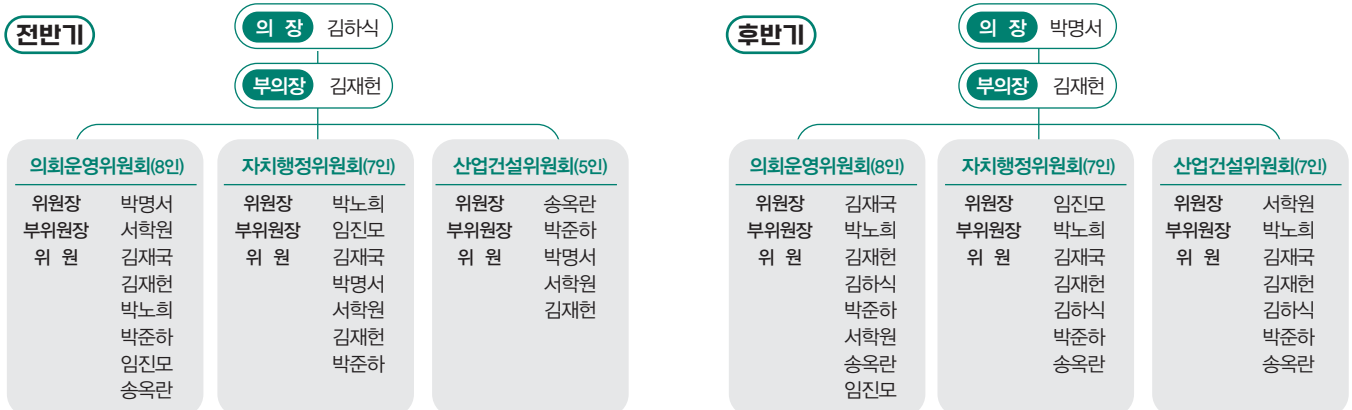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8대 이천시의회는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제8대 의회는 소통하는 공감의회와 시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지향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제8대 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안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실제로 각 회기에서는 복지, 환경, 경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활발히 심의·의결되었고, 특히 지역단체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아동·노인 복지, 장애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소통과 공감, 시민 중심에서 민생을 책임져온 제8대 이천시의회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회의록 공개, 의사일정 안내,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했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균형 있는 시정 운영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제8대 이천시의회 전·후반기 원구성



회기 운영

제8대 이천시의회(2022. 7. 1.~4. 30.기준)는 367일간, 총 33회 회기를 운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는 제7대(350일), 제6대(308일)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회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통계 기준 제8대 의회는 총 943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본회의를 거쳐 처리가 완료된 의안 중 원안가결은 893건, 수정가결 17건, 부결 1건, 폐기·철회는 각 0건, 미처리 3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이천시의회가 다수의 안건을 비교적 높은 합의 수준으로 처리해 왔음을 보여준다. 수정가결 17건은 표현 정비, 조문 보완, 대상 범위 조정, 시행 시기 조율처럼 법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이 주된 이유로 해석된다. 부결은 1건에 불과한데, 이는 상위법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천시의회는 사전에 입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수 안건이 심사 단계 전에 충분히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산 심의에서는 연도별 재정 흐름에 맞춘 체계적인 재정 통제 기능이 두드러졌다. 2024년도 예산은 약 1조 1,862억 원, 2025년도에는 약 1조 3,688억 원, 2026년도 예산은 약 1조 3,506억 원으로 민생안정과 필수경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연계된 예산 심의 구조를 통해 지적사항이 예산 조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제8대 이천시의회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및 성명서 등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제8대 이천시의회, 정책형 의회로의 전환

다. 의회는 이천과학고 설립 지원 및 교육 협력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미래 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했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강력 촉구,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등과 같이 지역사회 요구를 제도권 의제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특히 행정에 대한 견제와 지역 현안을 꼬집는 주요 통로로 80여 건이 넘는 5분 자유발언을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의원 평균 출석률이 90~100%를 유지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도 두드러졌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는 회기 운영을 기반으로 의안 및 예산 심의, 정책 입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단순 심의기관을 넘어 정책을 생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형 의회’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성과로, 시민 중심 의정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구현의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8대 의정활동 핵심지표

회기 운영	회의일수	안전 처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33회	367일	943건	185건	282건	80건

대수별 주요 지표 비교



제8대 회의별 일수(폐회 포함)

회의별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자치행정 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일수	73	56	52	50	69	39	2

의원 출석률(2022. 7. 1.~2026. 6. 30.)

의원명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자치행정 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리특별 위원회
박명서	100%(73/73)	100%(30/30)	100%(27/27)	100%(27/27)	100%(50/50)	100%(29/29)	100%(1/1)
김재현	100%(73/73)	98%(51/52)	100%(53/53)	100%(49/49)	100%(66/66)	100%(37/37)	100%(2/2)
김재국	100%(73/73)	100%(52/52)	100%(51/51)	100%(25/25)	100%(66/66)	100%(37/37)	100%(2/2)
임진모	99%(72/73)	94%(49/52)	100%(53/53)	100%(17/17)	100%(66/66)	97%(36/37)	100%(2/2)
서학원	99%(72/73)	92%(48/52)	97%(36/37)	98%(48/49)	94%(62/66)	94%(35/37)	100%(2/2)
박노희	100%(73/73)	96%(50/52)	100%(53/53)	100%(31/31)	100%(66/66)	100%(37/37)	100%(2/2)
김하식	100%(73/73)	86%(19/22)	100%(25/25)	100%(23/23)	100%(32/32)	100%(8/8)	100%(1/1)
박준하	99%(72/73)	90%(47/52)	91%(48/53)	98%(48/49)	98%(65/66)	97%(36/37)	100%(2/2)
송옥란	100%(73/73)	90%(47/52)	97%(34/35)	100%(49/49)	100%(66/66)	97%(36/37)	100%(2/2)

※ 출석률(출석횟수/회의횟수)

의안 처리 현황

제8대 이천시의회는 총 94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며 활발한 입법 및 의사결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제7대 819건, 제6대 455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의회의 입법 기능과 정책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유형별로는 조례안 및 규칙안이 500건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산·결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 다양한 안건을 폭넓게 처리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제8대 이천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307건으로 제7대 145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의원 중심의 능동적인 입법활동이 활성화됐다.

분야별로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치행정 분야가 두드러졌고, 복지, 아동, 노인, 청년, 장애인, 여성을 아우르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아동학대 예방,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제도화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안전 분야에서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화재 취약계층 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조례가 다수 발의되며 선제적 안전 정책 기반을

의원발의 조례를 통한 입법 기능 강화

구축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순환경제 촉진, 탄소중립 정책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입법이 이어졌다.

지역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됐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로컬푸드 육성, 스마트농업, 농업 안전관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법이 확대됐다.

또한 청년·노동 분야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플랫폼 노동자 지원, 청년 정책 기반 마련이 이루어졌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음식관광, 체육 진흥, 지역 자원 활용 정책이 강화됐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의정모니터단 운영, 지방의회 교류협력,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윤리강령 강화 등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이 병행됐다. 특히 일부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며 지방의회 입법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았다.

의원별로는 송옥란 의원이 90건 이상 조례를 발의하며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였고, 김재국·서학원·임진모 의원은



안전, 복지, 농업,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조례를 추진했다. 박노희·박명서 의원은 제도 개선과 생활밀착형 조례를 중심으로 성과를 냈으며, 김재현·박준하 의원은 재정, 산업, 복지 분야 입법을 통해 정책 기반을 보완했다. 김하식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 조례, 교육경비 지원 등 미래 정책과 교육을 아우르는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실용적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시민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의회가 정책을 직접 생산하고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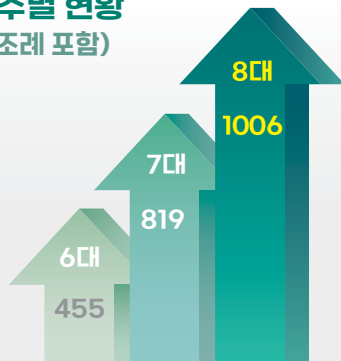
주도형' 의정활동의 대표 성과로 평가된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위원회 발의 조례가 없는 구조 속에서도 의원발의 중심의 입법활동으로 전국 최초 조례 5건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며 정책 선도 기능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고,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은 도시 안전관리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 성과는 단순 지역 조례를 넘어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가진 정책형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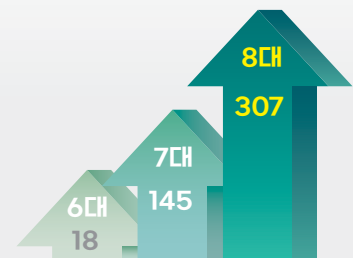
의안처리 종류별 현황

종류별	조례안/규칙안	예산/결산안	동의안	결의안	승인안	의견청취	중요동의	기타
건수(1006)	543/12	48	150	29	8	26	14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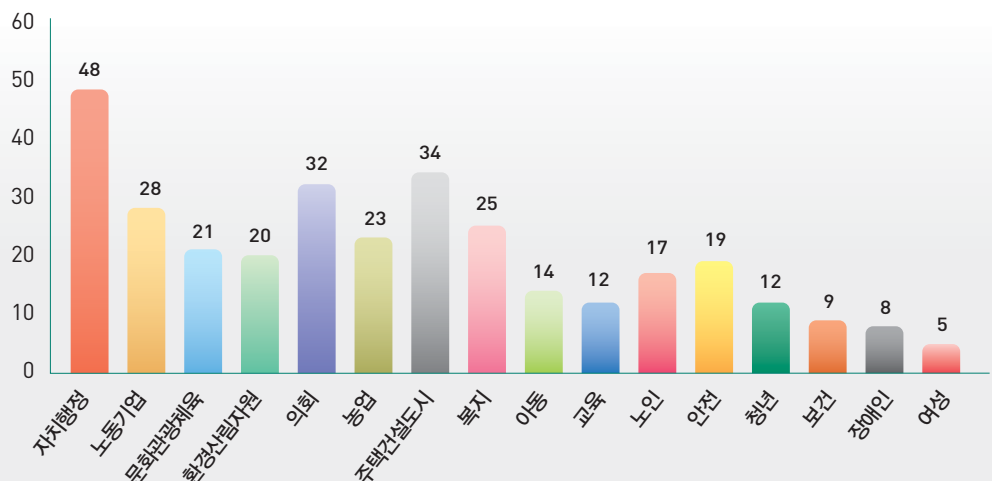
의안처리 대수별 현황 (집행부 발의 조례 포함)



의원발의 조례 대수별 현황 (규칙 포함)



의원발의 조례 분야별 현황 (부결, 철회 조례 제외)



시정질문

제8대 이천시의회는 총 185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제7대 177건, 제6대 170건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적극적인 정책 점검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 보면 자치행정·재정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주택·도시개발, 교통·안전, 복지 분야 순으로 나타나 도시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정 운용, 지방채 발행, 보조사업 운영, 예산 편성 방식 등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

의원별로는 김재국 의원이 전통시장 안전관리, 교통혼잡 해소, 주차 문제, 돌봄센터 운영 등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다수의 질문을 제기하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노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탄소중립,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박명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과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서학원 의원은 교통, 교육, 문화, 군 관련 정책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루며 정책 다변화를 이끌었고, 김재현 의원은 도시재생, 교육 확대, 교통안전, 생활SOC 확충 등 지역 기반시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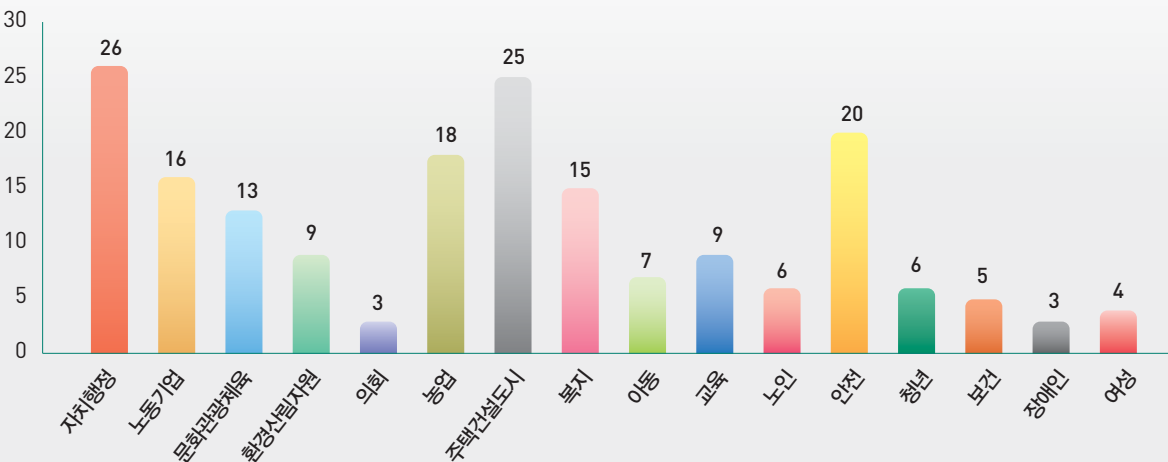
시정질문을 통한
정책 견인과 현안 해결

시민 편의 증진에 집중했다. 박준하 의원은 재정 운용과 균형 발전, 정책 투명성 확보 등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김하식 의원은 공원·문화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송옥란 의원은 첨단미래도시, 복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등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정책을 제시했고, 임진모 의원은 축제 운영, 생활 인프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에 그치지 않고 교통체계 개선, 도시개발 방향 설정, 복지 서비스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특히 시정질문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질문과 후속 점검을 통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등 단순 질의를 넘어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질문 건수 분야별 현황



행정사무감사

제8대 이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총 28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며 제7대 213건, 제6대 164건 대비 크게 증가해 감사 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요 정책 추진 과정, 행정 운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가로수 및 공원 관리, 교통체계 개선, 도시개발 사업, 복지서비스 확대, 재정 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 인사 운영, 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전반의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보조금 정산 부적정, 사업 실효성 부족, 불용 예산 관리 문제 등은 시정 및 처리 의견으로 반영되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된 예산 이월, 보조금 관리, 수의계약 투명성 문제 등은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의원별로는 박노희 의원이 주민참여예산과 복지, 안전 분야 개선을, 박명서 의원이 도시개발과 인사·재정 운용 개선을, 서학원 의원이 교통·안전 및 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지적했다. 김재현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박준하 의원은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송옥란 의원은 복지, 청년, 농업, 디지털 정책 등 미래 대응 분야까지 폭넓은 개선안을 제시했고, 임진모 의원은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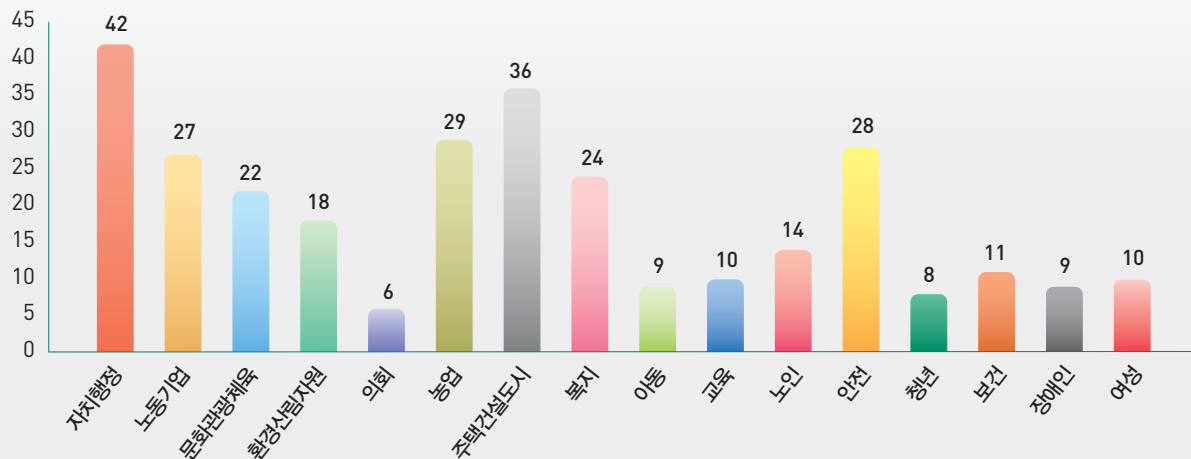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

여기에 김하식 의원은 가로수 관리, 도로·하천 민원 대응 등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관리 개선을 중심으로 실무형 지적을 이어갔으며, 김재국 의원은 교통, 도시계획, 공공시설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감사 결과는 ‘완료’, ‘추진 중’, ‘장기검토’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사후 점검까지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실제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교통시설 개선,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다수의 건의 사항이 완료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었고, 일부 사업은 지속적인 관리 과제로 이어졌다. 아울러 우수사례로는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공공데이터 활용 등 행정혁신과 시민 편의 증진 사례가 다수 발굴되며, 감사가 단순 지적을 넘어 모범 행정을 확산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견제와 대안 제시’를 균형 있게 실현한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감사 건수 분야별 현황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

2022년도

- 1 제회 주민총회 성공적 운영 자치행정과 (14개 읍면동)
-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성과 탁월 토지정보과
- 3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 자원관리과
- 4 횡단보도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 교통행정과
- 5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충실 보건소

2024년도

- 1 고향사랑기부제 체험형 답례품 개발 홍보담당관
- 2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CCTV 통합관제센터 정보통신담당관
- 3 공공 빅데이터 생성 정보통신담당관
- 4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여성보육과
- 5 도자기 축제의 성공적 운영 관광과
- 6 도서관 펴서 나눔 도서관과

2023년도

- 1 이천시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정보통신담당관
- 2 설봉공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 및 가로수 정비 등 경관개선 공원녹지과
- 3 도로 보수 민원 처리 우수 도로관리과, 읍면동
-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로 축산과
- 5 이천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을 하수과
- 6 사회기관단체 1:1 매칭 공원입양 사업 창전동

2025년도

- 1 법·제도 개선 실적 우수 기업경제과
- 2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서희테마파크 황톳길 조성 공원녹지과
- 3 북하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추진 우수 건설과
- 4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성과 우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5분 자유발언

제8대 이천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 80건의 정책 제안과 현안 제기를 이어가며 공론화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제7대 59건, 제6대 10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의원들의 정책 제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5분 자유발언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문제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현장 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의정 수단으로 기능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인구 감소 대응, 도시 인프라 확충, 재정 건전성, 농업 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나타났으며, 이천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안형 발언'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의원별로는 김재국 의원이 준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응,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지원,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농업시설 안전관리 등 안전과 환경, 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현장 대응형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인구 유입 정책, 공동주택 지원, 연구용역 개선 등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을 병행하며 의정 범위를 확대했다.

박노희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동자 복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통해 정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과 기업 판로 확대 등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 개선 중요 플랫폼으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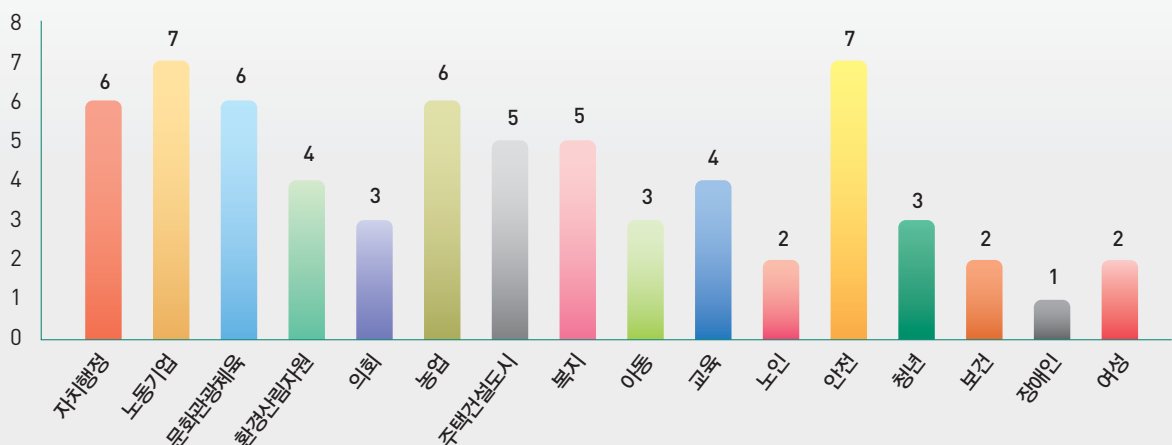
서학원 의원은 관광 활성화, 공항 유치, 과학고 설립, 행정 효율화 등 도시 성장 전략과 행정 구조 개선을 폭넓게 제시하며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선도했다. 김재현 의원은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박준하 의원은 재정 악화 문제, 공유재산 관리, 교통안전, 농업 정책 등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고, 송옥란 의원은 도시 브랜드, 안전관리, 미분양 해소, 미래도시 전략 등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하식 의원은 교육 경쟁력 강화, 기업과 지역 상생, 문화관광 자원화 등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했으며, 임진모 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도로 인프라, 구도심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5분 자유발언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창구로 기능했다. 또한 발언 내용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으로 이어지며 정책 반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행정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발언 건수 분야별 현황



예산 현황

제8대 이천시의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체계적인 재정 통제 기능을 수행했다. 2024년도 예산은 약 1조 1,862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67%(약 195억 원) 증가했으며,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과 복지정책 확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기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약 50억 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2025년도 예산은 약 1조 3,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약 1,826억 원) 대폭 증가했으며, 공공 인프라 확충과 복지 강화, 농림·교통 분야 투자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과다 편성 또는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47억 원 규모를 감액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특히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점검해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사전에 조정했다.

2026년도 예산은 약 1조 3,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약 182억 원) 감소하며 재정 안정 기조 속에서 민생안정과 필수경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약 33억 원을 삭감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균형을 유지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시기 부적정, 과다 편성, 인건비 집행잔액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 점은 재정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민생 현안 대응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는 연도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계수조정과 구조적 점검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재정 운용 기반을 확립했다.

2023~2026년도 예산(총규모)

*제1차 수정예산 포함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합 계	1,166,720,275	1,186,244,884	1,368,873,730	1,350,608,871
일반회계	964,936,976	994,573,161	1,191,428,369	1,203,664,051
기타특별회계	80,373,781	84,554,968	88,893,722	102,789,978
공기업특별회계	121,409,518	107,116,755	88,551,639	44,154,842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이천시 청소년 인프라 구축 연구

◦연구연도: 2022년

◦회원현황: (회장) 박명서 (회원) 김재현, 김재국, 임진모, 박노희, 김하식, 박준하, 송옥란

개요 본 연구는 이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임·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천시 및 인근 지자체의 청소년 시설 현황과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3C(Customer, Company, Competitions) 분석 관점에서 지역 여건을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설 유치 전략과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였으며, 외부 청소년 유입을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한 단계별 로드맵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천시 입법정책개발 연구

◦연구연도: 2023년

◦회원현황: (회장) 김재현 (회원) 박명서, 김재국, 임진모, 서학원, 박노희, 김하식, 박준하, 송옥란

개요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행정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천시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했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한계를 도출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심사 기법을 제시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도모했다.

이천시의회 예·결산 재정분석 연구

◦연구연도: 2024년

◦회원현황: (회장) 송옥란 (회원) 박명서, 서학원, 박노희, 김하식, 박준하

개요 본 연구는 이천시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재정 여건과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재정 건전성을 진단했다. 또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세수 추계 개선, 보조금 관리, 기금 정비 등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나아가 중장기 재정 운용 개선 방안과 관리·감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

◦연구연도: 2024년

◦회원현황: (회장) 김재국 (회원) 박명서, 김재현, 임진모, 서학원, 박준하

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정리하고, 이천시의회 감사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입법, 재정, 사업 분야별 감사 이슈를 분석하고, 감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했다.

이천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연도: 2025년

◦회원현황: (회장) 임진모 (회원) 박명서, 김재현, 김재국, 서학원, 김하식, 송옥란

개요 본 연구는 이천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지역화폐의 개념과 국내 정책 흐름을 검토한 후, 이천사랑지역화폐의 이용 현황과 업종별 소비 구조를 분석했다. 또한 상인 인터뷰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체감 효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생산유발효과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가맹점 기준과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배달앱 연계, 가맹점 관리, 충전금 운영 개선 등 정책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연구연도: 2025년

◦회원현황: (회장) 김하식 (회원) 박명서, 김재현, 김재국, 임진모, 서학원, 박노희, 송옥란

개요 본 연구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행됐다. 지역 현황과 산업·생활 인프라를 분석하고,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해 발전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주민과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문화시설 조성, 공원 및 보행환경 개선, 상권 정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했다.



의원별 의정성과

박명서 의원 | 김재현 의원 | 김재국 의원 | 임진모 의원 |
서학원 의원 | 박노희 의원 | 김하식 의원 | 박준하 의원 | 송옥란 의원

기업 간담회를 통해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 결실, 24시간 아이돌봄 근거 조례 발의



 박명서 의원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은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중심 민생의회를 구현하며 시민 지향적 리더십이 돋보였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를 표방한 박 의원은 민생 밀접 문제 해결과 다양한 요구 반영에 주력,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회 위상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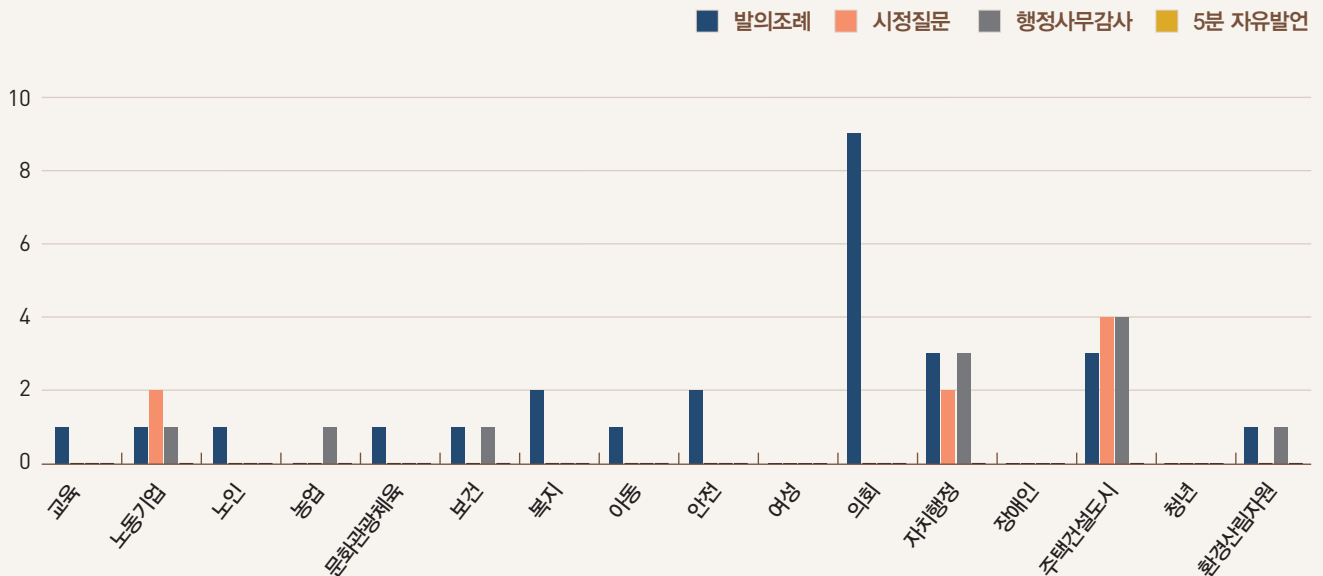
의장 취임 후 과학고 유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채택, 교육 인프라 확충의 초석을 마련했다. 기업 방문 간담회를 통해 관내 업체 물품 우선구매와 상생 모델을 모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구성 등 경기동부권 의장단협의회 활동으로 광역 현안 해결에도 기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인구유입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을 집행부에 건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제언 등의 노력은 저출산 대응 다자녀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제안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된 대표 조례안이며, 이천시 우수 행정 사례로 평가받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박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근거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박명서 의원은 ‘2026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열린 소통과 원칙 충실 의회를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 결성과 연구용역 착수로 공부하는 의회를 실현했다. 제8대 의회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시민 행복과 이천시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으로 평가된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26	6	17	2



대표발의 조례 26건

-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정질문 6건

-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 방안
-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행정사무감사 17건

- 세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내업체 우선 계약
-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촉진

5분 자유발언 2건

- 지속 가능한 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상설 판매공간 구축 제안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천시형 공공임대주택 정책 제안

청년, 아동, 노인, 난임가정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의정



 **김재현** 의원

이천시의회 김재현 의원은 제8대 의회에서 전·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 특히 청년, 아동, 노인, 난임가정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의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돕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와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어린이 돌봄 환경을 강화하는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세대별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정책에도 힘을 보탰다. 출산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위기임신과 난임 문제를 공공의 책무로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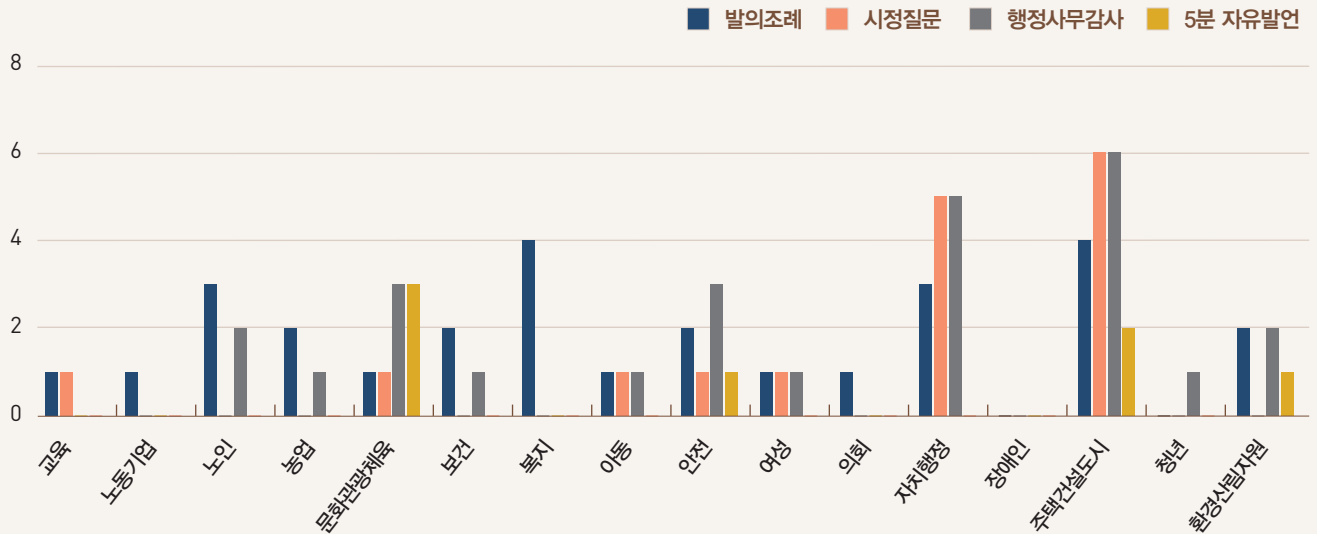
현장 중심 행보도 두드러졌다. 김 부의장은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 생활 속 불편을 다룬 5분 자유발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문제를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의회 의제로 끌어올려 행정의 실효적 대응을 이끌어냈다.

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마장면 오천지역 경관개선 사업을 시정질문으로 제기하며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강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구도심 부흥을 위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했다.

의정활동 우수성 인정으로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과 '2025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이천기자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부의장으로서의 조정력과 정책 제안 능력을 입증하며, 제8대 의회의 모범적 의정운영을 상징한다. 김 의원의 활동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이천의 지속가능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27	26	30	7



대표발의 조례 27건

-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30건

- 이천시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 검토
- 이천스포츠센터 위탁금액 현실화 및 운영 활성화
- 방치된 개발행위지 점검
- 중앙통 문화의거리 이용 고객을 위한 화장실 개설 요청

시정질문 26건

-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추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 편법 방지를 통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
-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5분 자유발언 7건

- 이천시 설봉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 제안
- 이천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제안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를 위한 조례와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김재국** 의원

김재국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의회가 시민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회의 진행을 넘어, 의회 전체의 운영 기조를 세우는 역할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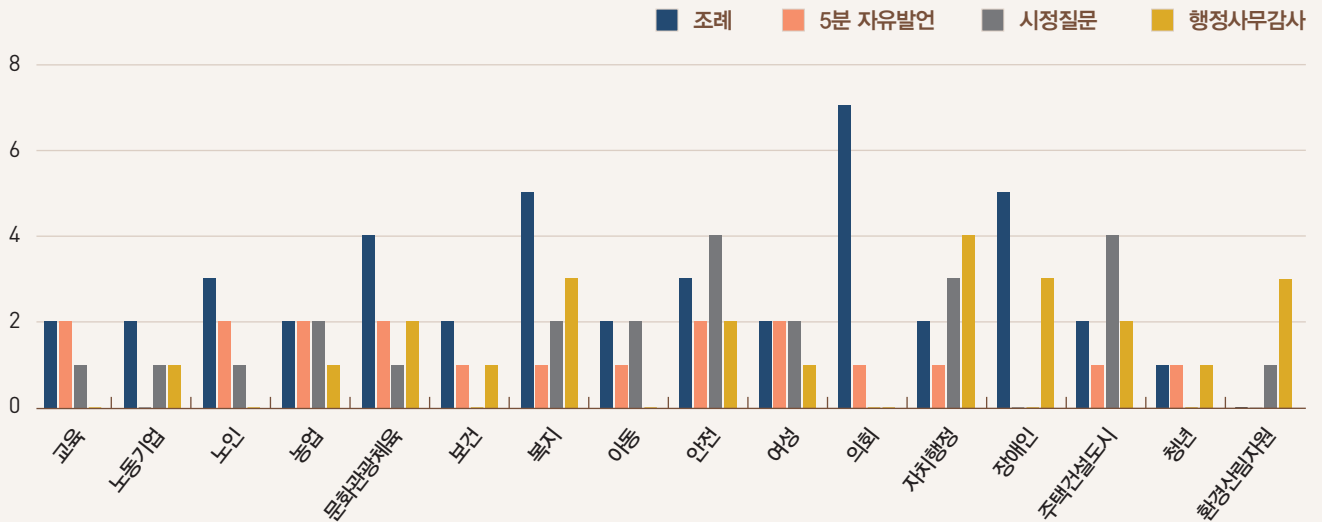
김 의원의 가장 큰 성과는 생활밀착형 조례 발의에 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은 입법을 통해 현실을 제도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전동보조기기 보험,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가 컸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김 의원의 존재감이 뚜렷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는 이천의 주거 환경 특성을 반영해 비상 연락망 구축과 정기 훈련 의무화를 명시한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제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짚어내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김재국 의원은 이천의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에도 적극적이었다.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같은 제안을 통해 단기 현안뿐 아니라 중장기 발전 전략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 중심 민생의회 구현 노력으로 평가받았고, 의정대상과 각종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종합하면 김재국 의원의 제8대 의정은 민생, 안전, 복지, 미래전략을 아우른 실천형 의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42	24	31	15



대표발의 조례 42건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
-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

시정질문 24건

- 전통시장 건축, 전기, 가스설비 등 점검을 통한 화재 및 안전 사고 관련 예방 대책
-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
- 분수대오거리 주차문제 대책
- 농촌 고령층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

행정사무감사 31건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
- 신둔면 도암교차로 좌회전 금지 개선 요청
- 지목변경 미정리 도로 조속한 정비 및 향후 준공도로 지목변경 법정기한 내 실시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부적정

5분 자유발언 15건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및 이용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인구소멸의 대응
-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
- 고령자 여가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 방안

자치입법의 기틀을 바로잡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앞장



 임진모 의원

임진모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며 자치입법의 기틀을 바로잡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앞장섰다. 공학도와 연구원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과 직결된 행정 효율화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이천 남부권, 장호원읍에 ‘열린 의정실’을 개소해 남부권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생활 행정 개선에 집중한 점도 돋보였다.

대표 발의 조례로는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시민·전문가가 의회 운영과 정책을 직접 점검하고 제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걷기 활성화 지원,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한 **문화·복지·행정 분야 등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의안을 제안했다.** 재정과 예산·회계 부문에서도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강조했고,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집행부의 사업 배치와 예산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투입 대비 효과를 높이는 실질적 행정개혁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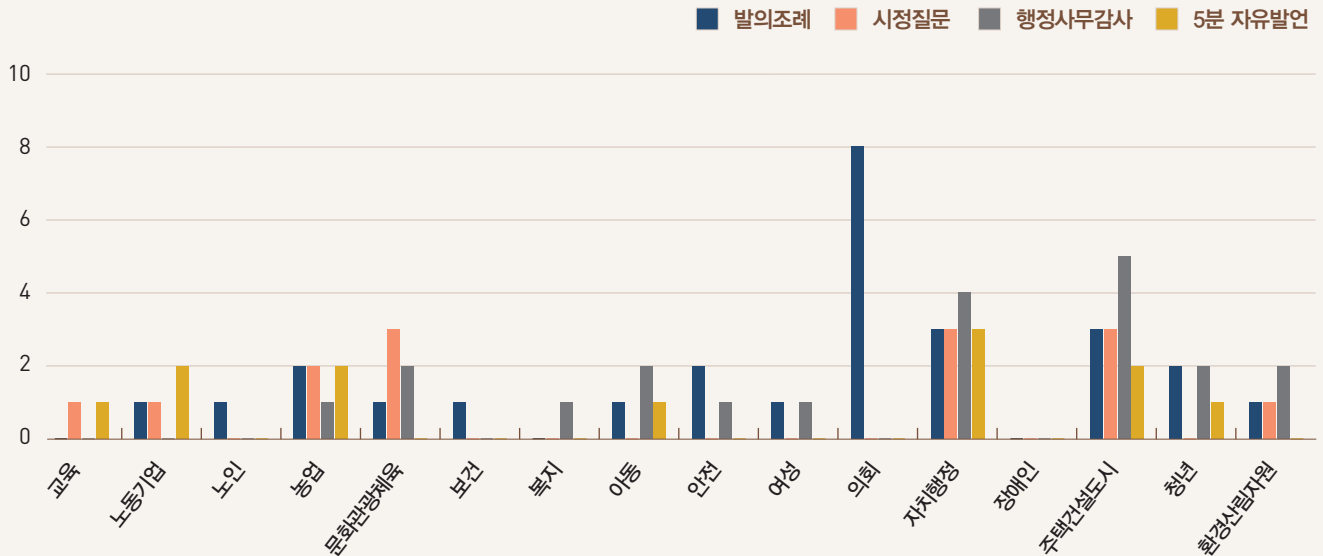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건설 학교’ 설치를 제안하며, 건설·CCTV·스마트 시티 등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과 지역 산업 수요를 맞추자는 정책을 제시해 교육과 일자리, 산업 구조를 연결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줬다.

특히 임 의원은 축산악취·질병·노동력 문제와 지역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축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스마트축산복합단지”를 이천의 축산정책 기본 방향으로 제안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농업이 자부심인 도시”를 비전으로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온 임 의원은 아시아 리더상 수상으로 시민 삶의 질 변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생활 행정 개선을 통해 이천의 미래를 준비했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31	12	26	12



대표발의 조례 31건

-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26건

-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구입처 다양화
- 보호종료아동 사회복귀 대책수립
- 관내 공용공간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 남천사가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 및 주차요금1일 최대요금 상한 폐지

시정질문 12건

- 복하천 수변공원 활용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청미천 파크골프장 주변 도로 개선
- 이천시 전기차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

5분 자유발언 12건

- 배달업 중심 구조의 한계와 식당 중심 먹거리 플랫폼 전환 제안
- NC백화점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제안
- 공공 주도의 역세권 개발 및 전담 조직 신설 제안
-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이천의 미래 산업 선제적으로 설계 전략형 의정 돋보여



 서학원 의원

서학원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재임하며 입법형·현장형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성과를 쌓아왔다. 지역구 2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도심 쇠퇴, 역세권 개발 지연, 산업·교통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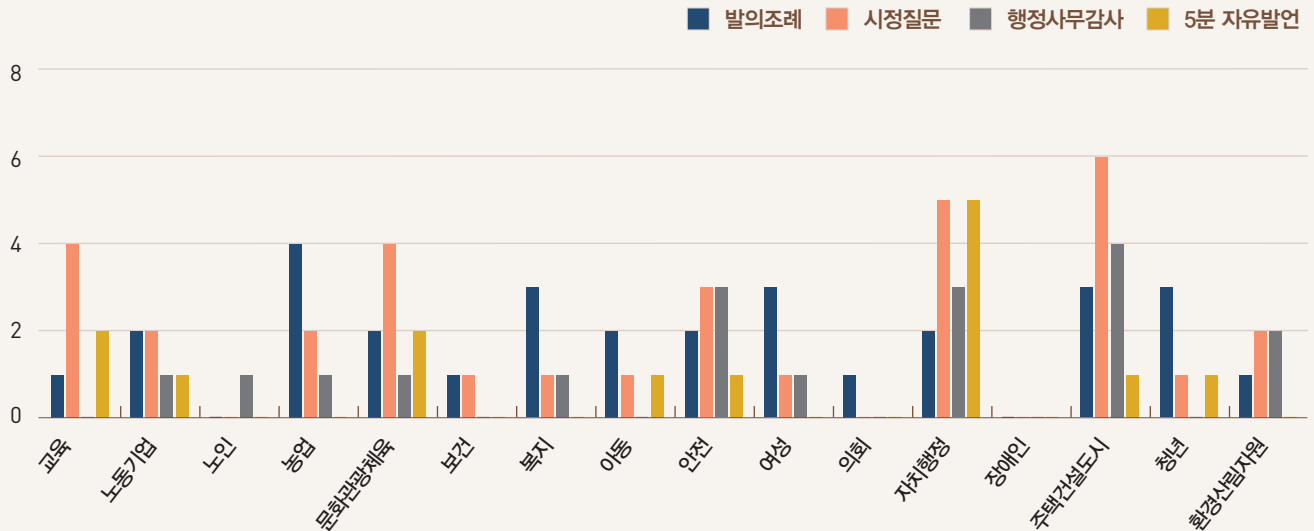
서 의원은 총 36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괄목할 만한 입법 실적을 거뒀다. 공공급식 지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안심귀갓길 조성, 독립유공자 지원, 축산업 육성,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 등을 이끌어냈고, 특히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귀가 안전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가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서 의원은 경실련 '우수 조례발의 시의원상' 과 수도권영상기자클럽이 수여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공항 이천유치, 방위산업 활성화, AI 실증 중심 도시 이천 건설 등 이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앞장섰다. 서 의원은 이천을 방위산업 허브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국방 관련 산업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과 기술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방위산업을 이천 경제의 성장축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또한 경기공항을 유치해 물류·산업·관광이 연계된 지역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 로드맵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서학원 의원의 이 같은 정책 패키지는 이천의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려는 전략형 의정의 사례로 평가받았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36	44	29	16



대표발의 조례 36건

-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꾸쳐 지원 조례안
-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시정질문 44건

-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필요
- 군(軍)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
-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기구 필요
- 학생 통학 순환버스 통학의 확대 필요성

행정사무감사 29건

- 지방하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대형공사 추진 시 철저한 지질조사 실시
- 읍·면·동 소규모 SOC사업의 사전 의견수렴체계 강화
- 경로당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5분 자유발언 16건

- 이천의 미래, 경기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
- 이천시 과학고 유치 예산 투명 공개 및 지역 학생 우선 선발 촉구
- 행정의 경계에 방치된 교실
- 이천, 규제의 도시에서 국가 전략 거점도시로

소신있는 견제와 비판으로 행정 신뢰 회복에 기여



 박노희 의원

“지난 4년은 이천 전역의 현장을 살피며 시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전한 박노희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며 교통 불편 해소, 보육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꾸준히 다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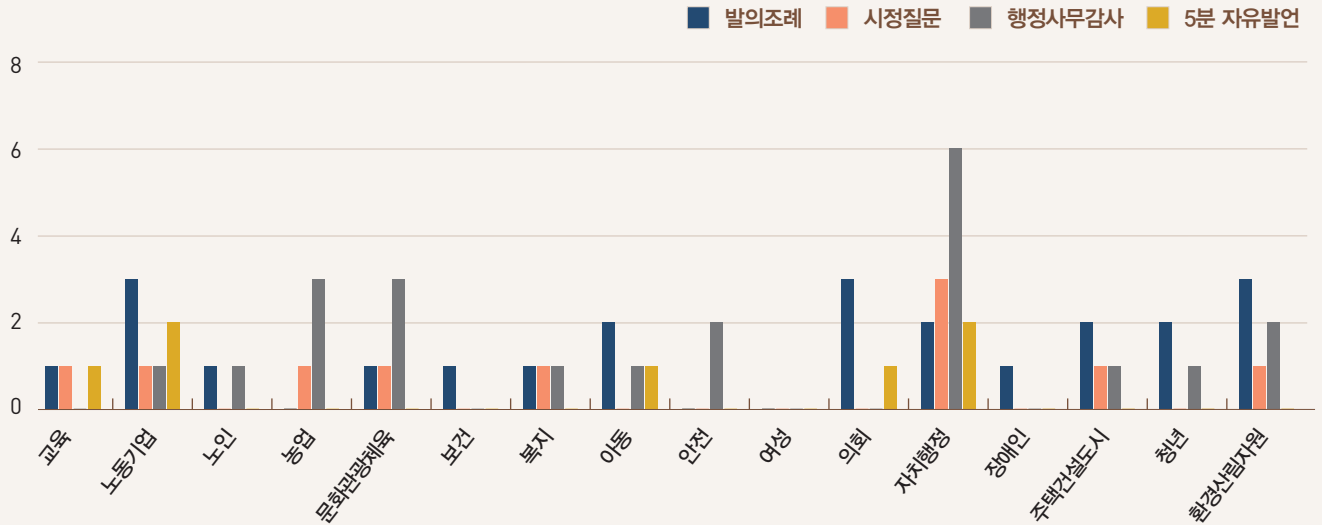
특히 박 의원은 어린이 동요역사관 행정 절차 검증,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예산 적정성 검토 등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제기에도 적극적이었다. 조례 제정과 행정 감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

5분 자유발언과 본회의 활동에서도 지역 현안을 날카롭게 짚었다.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공정한 인사 관행을 정착시키려 했다. 박 의원은 “말보다는 행동,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한 의정 철학을 피력하며 시민 이익 우선의 자세를 보였다.

박노희 의원은 4년 의정활동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는 정책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산업 다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소수당 현실 속에서도 소신 있는 견제와 비판으로 행정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 제8대 의회에서 보여준 박 의원의 행보는 현장성, 실천력, 책임감을 겸비한 모범적 의정으로 평가된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23	10	23	7



대표발의 조례 23건

-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23건

- 주민참여예산 적절한 배부 검토
-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지원 확대 및 법률홈닥터 변호사 채용 적극 대응
- 홍보용 이천쌀 사용기준 수립·시행
-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업무 선정에 관한 투명성 및 선정 절차 준수

시정질문 10건

- 이천시 돌봄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 행사성 경비 간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
-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감면을 위한 조례안 부결 관련

5분 자유발언 7건

- '이천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 '어린이 동요드림센터' 건립 관련
-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 비용
-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

소통형 의정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실현, 내부 시스템 개혁과 외부 소통 강화



 김하식 의원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형 의정을 펼치며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활동으로 주목받았으며, 내부 시스템 개혁과 외부 소통 강화를 통해 의회 위상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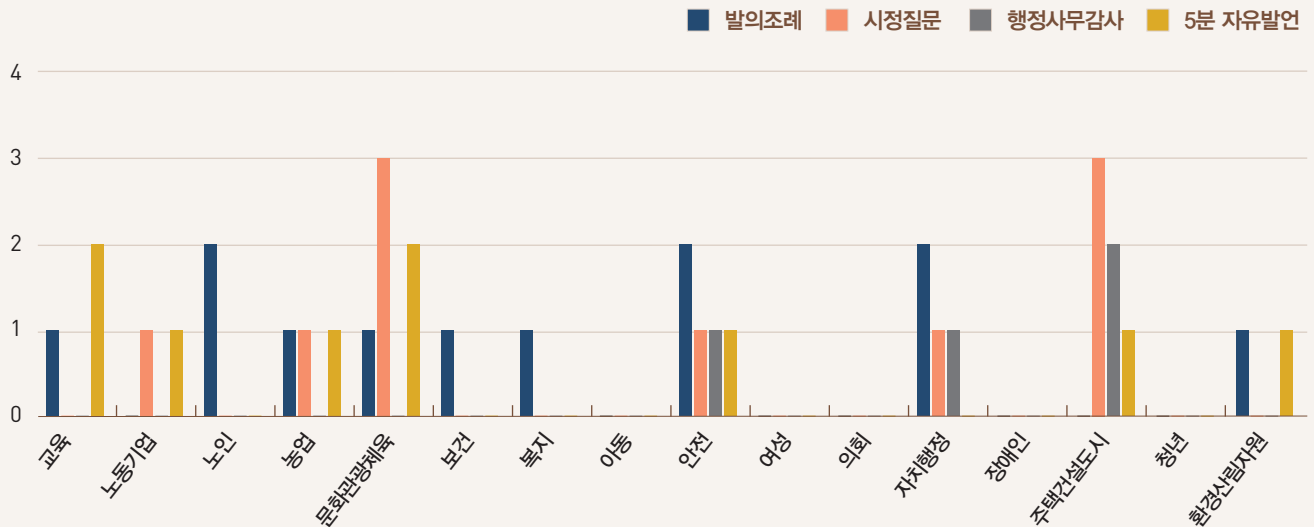
특히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음주운전 근절 조례를 발의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생업소 지원 확대를 통해 공중보건 기반을 다졌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으로 미래 산업 대비를 제안하며, 작은 변화부터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했다. 이러한 조례안들은 시민 밀착형 의정의 모범 사례다.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학생 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썼다. 효양산 은선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둘레길·한자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이천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지키는 투자로 평가된다.

지역 현안 해결에서도 적극적이었다. 부발읍 무촌리 변전소 증설 반대 주민 고충을 대변했고 SK하이닉스와의 상생 모델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 및 '의장배 체육대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다양한 공감 자리를 마련했다.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으로 소통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11	9	4	6



대표발의 조례 11건

-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부발달집촉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4건

- 준공식 행사 과도한 비용 지출 개선
- 가로수 관리 부적정 시정
- 국가 및 경기도 관리 도로·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적극 대응

시정질문 9건

- 이천시 축제와 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진리뜰 개발 제안
- 효양근린공원 조성
- 설봉공원 주차장 이용 불편과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
- 남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5분 자유발언 6건

- 부발변전소 증설문제 해결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제언
- 효양산 은선사, 향토유산 지정 및 문화관광 자원화 필요
-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 이천 K-소맥 & K-푸드 페스티벌에 대한 제안

대규모 개발사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강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원 조례 발의



 박준하 의원

박준하 의원은 제8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 **남부권 균형발전과 이천시 미래 농업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했다. 산업건설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농 지역 계획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 수요가 미약한 남부 생활권 침체를 지적, 대규모 개발사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을 강조했다. 젊은 아빠로서 육아와 의정을 병행하며 시민 공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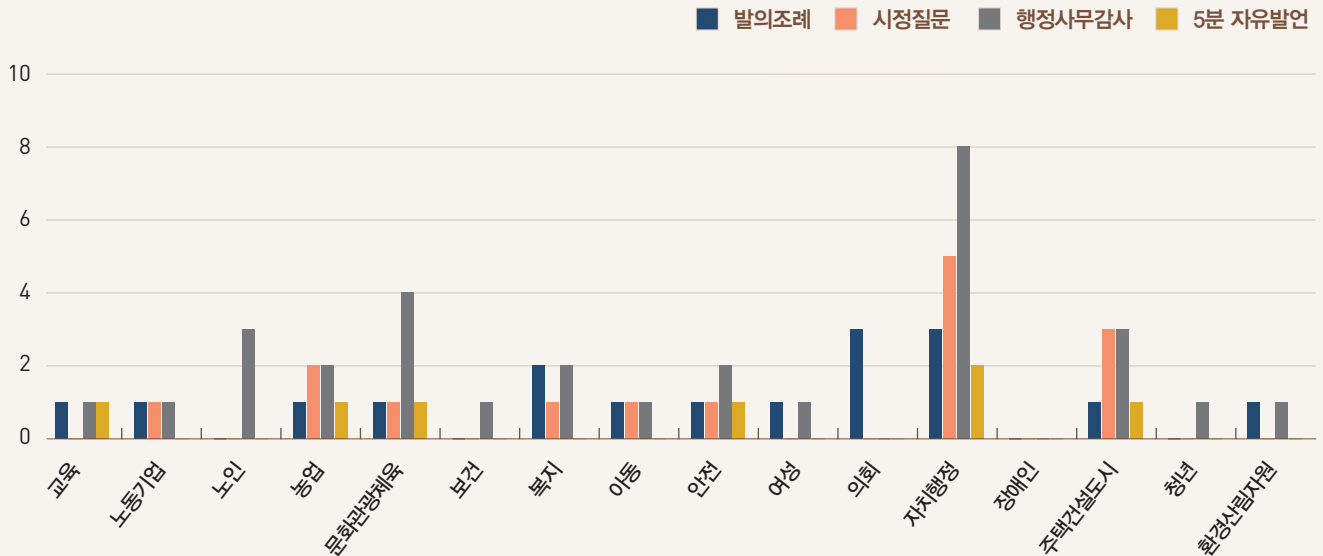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원 조례 발의가 대표적 성과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차별 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장애아 전문 유치원, 공동생활 가정, 자살예방센터, 소규모 시골 마을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메웠으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과 행정 감시에서도 적극적이었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무분별 공공개발사업의 재정 폭탄을 경고하며 임기 말 사업 쓸림현상을 비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동요역사관 신축 사업 외압 논란과 수의계약 체결 공정성 확보, 과도한 축제행사 예산, 형식적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의 문제를 제기해 투명한 행정과 시민 신뢰를 강조했다. 이러한 견제는 지방자치법이 강화된 시의회 권한을 십분 활용한 모범 사례다.

박준하 의원은 “예산과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박 의원의 활동은 젊은 세대의 실천적 리더십으로 이천 미래 발전에 기여했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18	18	49	5



대표발의 조례 18건

- 이천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정질문 18건

- 이천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질문
-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
- 재정안정화기금 소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 과도한 축제·행사 예산

행정사무감사 49건

- 수익계약 체결 공정성 확보
- CCTV 관제센터 법적근거 마련
- 동물보호관리 사무위탁 철저
- 집단 환경 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 5건

- 이천시의 무분별한 공공개발 사업과 재정악화 문제
- 이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확대 제안
- 이천시 농업정책의 미래를 위한 제안
- 학생 통학 지원 확대 및 교통환경 개선 제안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외 2건 전국 최초 발의 최다 91건 입법 성과로 행정 서비스 기반 강화



 송옥란 의원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한 송옥란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과 행정 감시로 탁월한 의정 성과를 남겼다.** 작은 조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신념 아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인 포괄적 의정이 돋보였다.

송 의원은 이천시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91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공공도서관 제작·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를 발의해 제도 공백을 메웠다.**

경제·산업 분야 활동도 활발했다. 임금님표 공동상표 지정업소 지원 조례,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등을 통해 노동 안전, 청소년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기계 폐유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수거 체계를 촉구, 농업 미래 보호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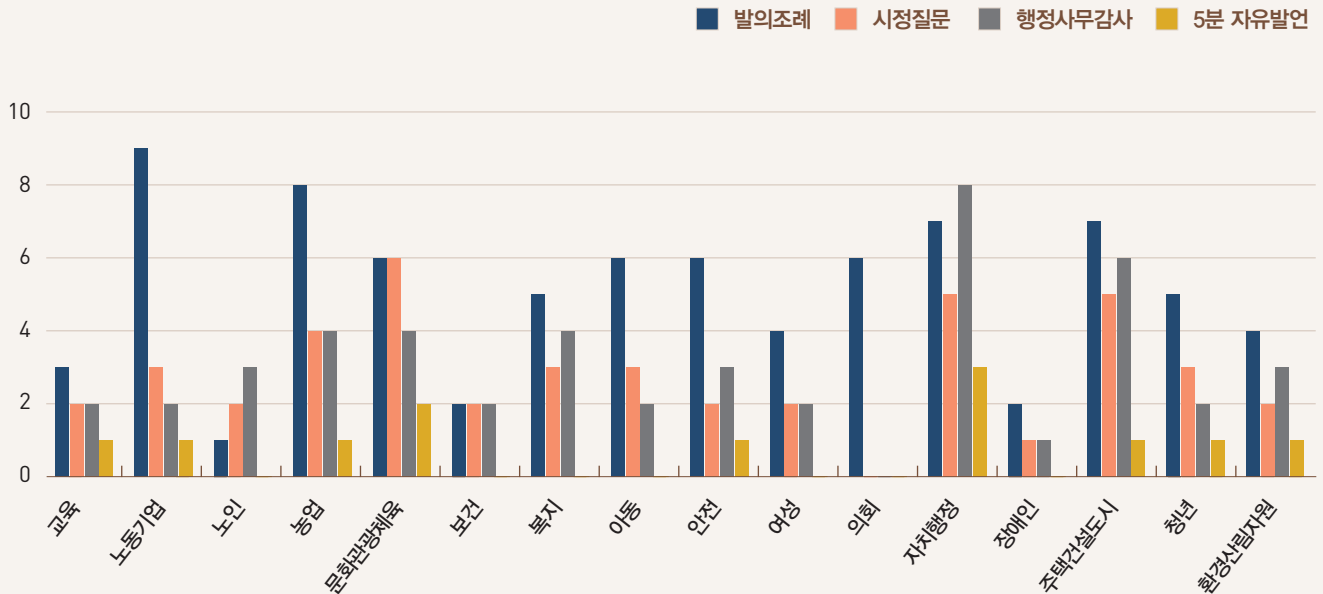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도 송 의원의 존재감은 컸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행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압박했다. 송 의원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짚어내 집행부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조했다.

또한 서희 정신 계승과 서희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이천의 도시 정체성과 인물 브랜드로 끌어올릴 것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서희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이천 시민의 구심점과 자긍심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의정활동 부문)을 수상하며 성실·창의적 지방 의정 기여를 인정받았다. 제8대 의회에서 보여준 송 의원의 '정의롭고 따뜻한' 열정은 이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의정활동 성과

구분	의원발의 조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건수	92	36	92	10



대표발의 조례 92건

-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임금납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시정질문 36건

- 이천시 산업의 다양화 및 물류·유통산업의 발전 방안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전동 공공개발의 필요성
-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
- 이천국제서히컨벤션센터 건립 필요

행정사무감사 92건

-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개선
- 관고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 다산고 정문 앞 통학시간대 교통안전 미비에 따른 개선 요청

5분 자유발언 10건

- 미래도시 이천을 위한 창의혁신 도서관 정책 제안
- 주민참여 감독관제 철저한 시행 촉구
- 소통과 평화의 상징 '서희' 중심 도시브랜드 구축 제안
- 구도심과 신도심의 희망 이음길 고가 보행로



제8대 이천시의회 10대 의정 이슈

1

시민 참여형 의정 강화

의정모니터단 운영

이천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본격화했다. 의회는 2025년 제1기 의정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해 2026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참여형 의회 모델을 더욱 구체화했다.

의정모니터단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정책 제안, 지역 현안 의견 전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단순 참관을 넘어 의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특히 모니터단의 의견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 검토 과정 등에 반영되며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또한 의회는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함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이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 구조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처럼 이천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개방성과 민주성을 한층 강화했다.

2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나눔 활동 확대

이천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전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치며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방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명절 위문, 배식 봉사 활동이 연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의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비롯해 대설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지원에 나섰으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등 제도적 대응에도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이천시의회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3

지역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현장 소통 및 시민 불편 해소

이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지역업체를 비롯해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직능·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2025년에는 **“관내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구매의 지역 환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야별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낙농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농축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 환경 개선과 처우 문제를 논의하는 등 분야별 맞춤형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또한 장애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이동권과 복지서비스 개선이,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소통에서는 보육 환경 개선과 운영 애로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러한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

4

의정활동 공개 및 윤리·투명성 강화

제·개정,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는 다양한 분야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정착시켰다.

이천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점검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운영하고 영상 전문 인력을 채용해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브리핑실을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본회의 및 주요 회의 영상 공개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영상에 수어통역을 도입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열린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 활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의회 스스로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제도화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5

의장배 체육대회 신설로 시민 화합 증진

이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 기간 중 시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의장배 체육대회를 신설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대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배드민턴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 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으며,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와 지역 단체가 참여하면서 시민 참여형 행사로 자리 잡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와 '건전재정 방안 모색 연구회' 활동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했고, '예·결산 재정분석 연구'를 통해 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 용역' 세미나를 개최해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였고,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

6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 전문성 강화

이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의원 연구활동과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지역발전 연구회'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주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으며,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또한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와 '건전재정 방안 모색 연구회' 활동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했고, '예·결산 재정분석 연구'를 통해 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 용역' 세미나를 개최해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였고,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

해 조례 제정 및 정책 입안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 관련 정책 연구도 병행하며 정책 영역을 확대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됐으며, 그 결과는 조례 제·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단순 심의 중심 의회를 넘어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정책형 의회’로의 전환 기반을 구축했다.

7

타 시·군 의회 교류를 통한 상생·연대 강화

이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타 시군의회의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연대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는 복구 지원에 참여

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성금 전달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안동시의회와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통영시의회 및 공주시의회와의 지역 축제 상호 방문을 통해 문화·관광 정책과 지역 발전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 방문을 넘어 정책 벤치마킹과 공동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졌으며, 의회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이천시의회는 재난 대응과 지역 간 교류를 병행하며 지방의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역량을 확장해 나갔다.

8

입법지원체계 구축으로 정책 의회 기반 강화

이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입법설명회를 신설하고, 입법지원팀 구성과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대폭 강화했다.

입법설명회는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정책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절차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검토, 정책 분석, 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의원 개별 역량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기능을 확장시켰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는 입법과 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며 ‘심의 중심 의회’에서 ‘정책 생산형 의회’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9

지방의회· 지방행정 박람회 금상 수상으로 의정 우수성 입증

이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해당 박람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정책 사례와 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이천시의회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과 민생 중심 정책 추진, 투명한 의회 운영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정책 소통 강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천시의회는 단순한 지역 의회를 넘어 전국 단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 단위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제8대 의회의 정책 성과와 운영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의회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였다.

10

청소년 참여 확대 및 미래세대 의정교육 강화

이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청소년의회 운영, 의회 견학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미래세대의 의정 참여와 교육 기능을 강화했다**. 청소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으며, 청소년의회와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며 본회의장 체험, 의정 활동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이천시의회는 학교 체육 활성화 및 교육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 체육 유공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이천과학고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 정책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청소년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교육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의정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제8대 이천시의회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 정책 활동을 병행하며 의회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의 소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천시의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1 불편한데...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지?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골목길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지역 문제는 **의회로 전달**됩니다.

2 의회는 해결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현장 점검

회의 및 자료 검토

조례·예산 심의

의회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의회의 주요 역할

- ✓ 조례 제정·개정
- ✓ 행정사무감사
- ✓ 예산 심의
- ✓ 지역 현안 논의

3 그리고 시민의 일상이 바뀝니다

킥보드 주차구역
정리된 킥보드 주차구역!

밝아진 골목길!

이천시 복지센터
편리한 복지서비스!

시민 참여가 변화를 만듭니다

의견을 들려주세요 → 의회가 확인하고 논의합니다 → 정책과 예산에 반영합니다 →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집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발전 아이디어까지,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나은 이천**을 만듭니다.



이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이천을 만들어갑니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퇴근길, 인도 한가운데 놓인 전동킥보드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

유모차를 끌고 가던 시민은 차도로 내려가야 했고, 어르신들은 불편한 걸음으로 킥보드를 피해 지나가야 했습니다. 학교 주변과 버스정류장 인근에서도 반복되는 안전 문제와 불편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는 의회에 전달됐고, 현장 점검과 정책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의견은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정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참여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의정활동과 정책 논의에 소중하게 반영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1. 자치법령 제도개선 및 의정활동관련 건의사항 접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주차 문제
- 환경 및 생활불편 사항
- 보행 안전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 청년·노인 복지 정책
- 교육·문화 정책 제안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책 논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2. 주민조례청구 제도

시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청구하면 의회가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 주민조례청구
- 복지 확대 정책
- 생활환경 개선
-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시민 안전 강화

의회견학안내



견학시기 연중 수시



신청방법 의사팀(031-644-2516)으로 견학신청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의회) Tel 031)644-2532 Fax 031)631-2980
<https://council.icheon.go.kr>